

古下 宋鎮禹의 문화주의를 재조명한다.

김학준 (인천대학교 총장·정치학 박사)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의 현대 정치사에서 고하 송진우(古下 宋鎮禹)만큼 아깝게 일찍 세상을 뜬 지도자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해방 이후 그 어지러웠던 남한의 정국을 지조를 날(經)로 삼고 경륜을 씨(緯)로 삼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바로 그였건만 해방으로부터 1백 30여일만에 암살되고 말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족의 불행이었다.

그래도 다행스런 것은 고하의 민족주의적 민주주의자로서의 정치적 이념과 비전이 후대에 올수록 재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의 평생의 지론들 가운데 하나였던 문화주의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21세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재평가되고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 또는 원동력이 무엇이나를 놓고 그 동안 수많은 논쟁이 벌어져 왔다. 종교지도자들은 신(神)이라고 대답했고, 정치체일주의자들은 정치라고 대답했으며, 군국주의자들은 무력이라고 대답했다.

그런가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경제결정론을 제시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주의자들은 정신을 앞세웠다. 역사의 전면(前面)에 화려하게 등장한 정치가들, 혁명가들, 경제인들 또는 장군들이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세상을 바꿔놓는 힘은 인간의 정신작용의 정화(精華)인 문화라고 그들은 주장한 것이다.

겉만 놓고 따지면, 문화의 힘은 약해 보인다. 천군만마(千軍萬馬)가 질주하고 첨단 고성능 무기가 작열할 때 문화는 설 땅이 없어 보인다.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앞에 문화의 힘은 초라해 보이기조차 한다. 그러나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표현은 진부하다 해도 여전히 진리이다. 양(洋)의 동서(東西)와 시(時)의古今(古今)을 막론하고, 비록 더디다 해도 사람을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는 것은 약해 보이는 문화의 힘인 것이다.

고하의 생애 55년(1890-1945)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 겨레를 외세가 지배하던 시기였다. 어려서부터 애국주의적인 교육을 받으며 컸던 그는 따라서 외세의 침탈에 대해 비분강개하게 반응하는 습성을 체질화시켰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평생을 일본과의 타협을 거부한 민족주의자로서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졌던가? 고하는 민족주의의 길을 문화에서 찾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포한 무력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겨레의 대항력을 그는 1차적으로 교육과 언론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운동을 통해 길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고하의 이러한 신념은 그가 20대 청년으로 부르짖었던 민족불멸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민족이 비록 외세의 압제 아래 놓여 있다고 해도 자신의 얼과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한 결코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재기할 것이라는 믿음이 워낙 컸던 것이다.

물론 그의 문화주의는 문화주의를 3대 주지(主旨)의 하나로 제창하면서 창간한 동아일보의 기본정신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그 접합점 위에서 그와 동아일보 사이의 오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동아일보의 기사와 논설을 통해 동포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었지만, 동아일보의 많은 사업들, 예컨대 「삼성사(三聖祠-단군·세종대왕·이순신)건립운동」 「조선민립대학운동」 「조선물산장려운동」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 「문맹퇴치운동」 등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긴 안목에서 키워 주고자 했다.

당시 어떤 항일혁명가들은,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고하의 문화주의운동노선을 우익 부르조아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가 앞세워 키우려고 했던 우리 겨레의 문화의 힘이 일제 치하에서는 우리 겨레의 정체성(正體性)을 지키게 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또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반세기 넘는 고난과 성장의 연속선 위에서 우리 겨레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게 만들었음을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지난날의 일부 비판이 한계를 안고 있었음을 시인하게 된다.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가 열리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의 우승열패(優勝劣敗)가 문화의 힘의 경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최근 몇 해 사이 지식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미국 새뮤얼 헌팅턴 교수의 「문명충돌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문화론의 연장선 위에 있을 뿐이다.

우리 한국은 가장 국제적이면서도 가장 민족적이고 가장 민족적이면서도 가장 국제적인 문화를 길러내야 한다. 그것의 성패 여부가 21세기 우리 겨레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고하 탄생 1백 7주년을 맞아 재음미하게 된다.

김학준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이사장, 시립인천대학교 총장, 동아일보 사장,

동아일보 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역임.

현재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및 단국대 우석한국영토연구소 소장.